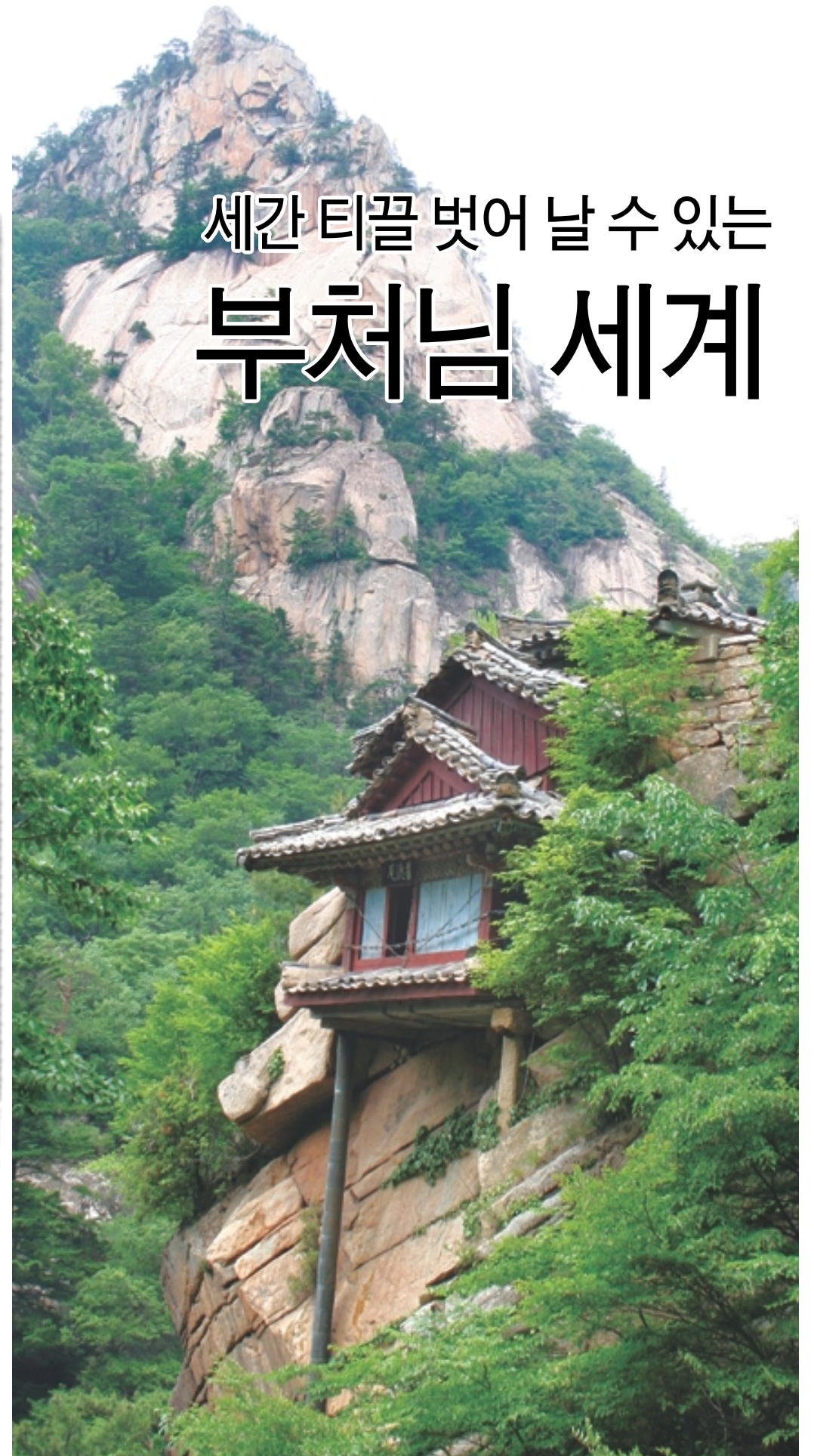




북한 국보 제46호인 묘길상. 석등은 북한 국보 제47호로 지정돼 있다.



세간 티끌 벗어 날 수 있는 부처님 세계

조계종 성지순례단 '내금강 답사' 동행취재

금강(金剛), 굳세고 단단해 불변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불도(佛道)를 구하기 위한 굳센 발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금강을 법기보살로도 번역하는데, 법기보살은 1만2000천 권속들과 금강산에서 머물면서 설법을 한다고 전한다. 법기보살의 성지 금강산 중 불교유적이 가득한 내금강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원로의원 12명 등 160여명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답사했다.

22일 아침 온정각에서 출발한 버스가 온정령굴이라는 터널을 지나자 비포장도로가 나온다. 내금강에 들어선 것이다. 차장 박 풍경도 사뭇 달라진다. 거세고 험한 남성적 모습은 사라지고 안온하고 부드러운 여성적 기운이 감싸 안는다. 두어 시간을 달려가면 만폭동 어귀에 있는 표훈사(表訓寺)에 다다른다.

표훈사는 금강산 4대 사찰 중 유일하게 전쟁의 화를 피한 곳이다. 신라 진평왕 20년(598) 관록과 웅은 스님이 창건한 표훈사에는 현재 7개의 건물이 남아있다. 성지순례단은 반야보전에서 간단하게 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표훈사 칠성각 옆으로 난 신길을 1분 정도 걸자 집채만한 바위가 나타난다. 금강문(金剛門)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 등이 신계사 도갑 제정 스님(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성지순례단, 표훈사서 법회 마하연사터에서 참선도 절벽 위 보덕암 탄성 절로

이 문을 지나면 새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금강산 3대 절경의 하나인 만폭팔담이 눈을 시리게 한다. 묘길상(妙吉祥)에 도착하자 거대한 마애불이 웃으며 순례단을 맞는다. 고려 말 묘길상암을 중창한 나옹 선사가 직접 새겼다는 묘길상·북한 국보 제46호는 문수보살의 화현이다. 묘길상 앞에는 북한 국보 제47호인 묘길상암 석등이 있다.

묘길상에서 1시간 정도 더 오르자 화엄십대사찰(華嚴十大寺刹) 중 하나였던 마하연사(摩訶衍寺)터가 나온다. 만공·청담·성철·석주 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이 용맹정진했던 참선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지관 스님 등은 이곳에서 잠시 참선에 들었다.

마하연사터에서 다시 내려와 왼쪽으로 난 출렁다리를 건너 오르다 보면 절벽에 매달리듯 서 있는 암자를 볼 수 있다. 20m가 넘는 절벽 중간 7.3m의 구리기둥 하나에 의지한 보덕암(普德庵)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오게 된다.

보덕암에서 내려오면 서산대사비를 비롯해 3개의 비석과 7개의 부도를 볼 수 있다. 백화암(白華庵)터 부도밭이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일명 '문(門)바위'라고 불리는 삼불암(三佛岩)도 있다.

장안사(長安寺)터에서 경주 흥륜사 선원장 혜해 스님이 '황성터'를 불러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답사 후 지관 스님은 "내금강은 불교성지가 많기 때문에 마땅히 복원해야 한다"며 "올 10월 신계사 낙성식 후 복원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산/글 사진·남동우 기자

절벽에 매달리듯 서 있는 보덕암.

"마하연사 복원하고 싶다"

98세 도천 스님 눈가에 눈물 비쳐



조계종 성지순례단이 답사하기 사흘 전 금강 태고사 도천 스님(前 조계종 원로의원·사진)이 98세의 노구를 이끌고 내금강을 찾았다.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난 도천 스님은 19세

에 금강산 마하연사에서 출가했다. 20여 년간 마하연사, 신계사 등에서 수행한 스님은 전쟁으로 금강산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자 남한으로 내려왔다.

도천 스님을 모시고 간 종열 스님(구해 화엄사 한주)에 따르면, 평지는 당신이 직접 걷고 오르막길은 동행한 상좌 4명이 번갈아 업고 다녔다고 한다. 도천 스님은 마하연사터에 도착하자 제물을 내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직접 손보기도 했다.

도천 스님은 "마하연사를 복원하고 싶다"며 눈가에 잔잔한 물기를 비치기도 했다.



백화암터 부도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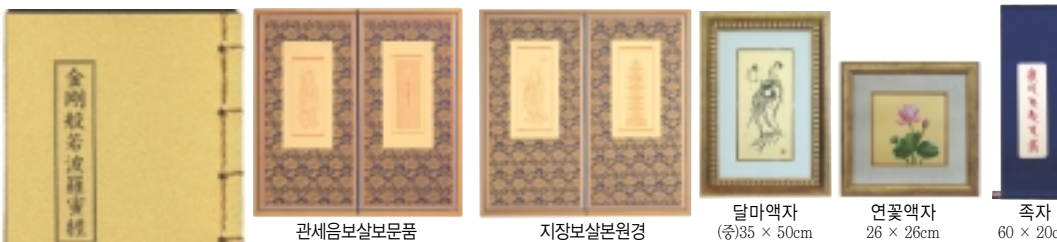
금강문.



삼불암.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운을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자, 음마니반애홍종자 등



순금경전규격
 (순)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본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품(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소형금병풍 규격: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전도, 제례용품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달마연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금달마, 연꽃연자, 음마, 반애홍종자 등은 스님 및 자가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연꽃자
 26 × 26cm
 60 × 20cm
 금달마, 연꽃연자, 음마, 반애홍종자 등은 스님 및 자가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발심으로 가피를 얻을 수 있으며 효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소) 20 × 12 × 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밭을 마음들이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되어 주나와 예배시에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직경 6~6.5cm
 가격 95,000원
 소원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육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 마염주입니다. 진법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안개가 발산되는 금강염주에 비해 1.500°C 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화와 93%의 산금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의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